이태준의 「토끼이야기」에 나타난 자연과 근대

유인혁*

〈차 례〉

1. 자연의 폭동
2. 생활인 이태준의 부업, 양토(養兎)
3. 근대적 목축의 폭력성
4. 군국주의의 사업
5. 근대가 바꾼 것

【국문초록】

이 글은 이태준의 「토끼이야기」를 통하여 근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구문학에서는 『백경』 등의 작품을 통하여 표현된 바 있는 이 주제는 우리 근대문학 속에서는 드물게 시도되어 왔다. 그것은 기껏해야 소박한 형태의 생태문학에서 다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태준의 「토끼이야기」는 근대가 어떻게 자연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조작된 자연이 어떻게 다시 인간을 곤궁에 빠트리는지를 예시한다.

본고는 이태준의 「토끼이야기」에 묘사되어 있는 하얀 토끼가 조선 재래의 것이 아니라는 가설에서 시작한다. 한국의 재래종 토끼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는 원래 잿빛 털을 지닌 멧토끼였으며, 따라서 이태준이 기르는 토끼의 하얀색 털은 근대가 조선에 소개한 박래품의 표지와 같은 것이었다. 토끼가 전통사회의 육축(六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토끼가 일종의 박래품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이 하얀 토끼는 일본에서 집토끼를 개량한 일본 백색종으로, 인위적으로 번식력을 강화한 종이었다.

소설 안에서 주인공 현은 토끼의 비정상적인 번식력 때문에 경제적 곤궁에 처한다. 토끼의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개체수는 증가했지만, 정작 그 토끼를 소비할 시장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양토에 뛰어 들었기 때문에 토끼시장은 일종의 과경쟁 상태였다. 이때 토끼는 '번식'을 통해 '생산'되는 일종의 자본주의적 상품이다. 그리고 무리하게 생산된 재고가 가격 하락과 경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토끼의 운명은 자본주의적 불황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토끼는 근대, 혹은 자본주의가 인위적으로 개량한 그 속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복수하고 있다. 그런데 현이 뛰어들었던 양토는 단순히 1940년대 유행한 부업이 아니라 일종의 군수산업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공군 및 육군이 방한용품으로 토끼 가죽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유행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조선과 동아가 폐간할 때, "송장의 주머니에서 턴 것 같은, 가슴이 섬찍한 퇴직금"으로 양토를 시작했던 현으로서는 이중의 변절과 다름없었다. 그는 예술을 떠나 생활의 방편을 찾는 과정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협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 근대, 자연, 자본주의, 축산업, 불황, 「토끼이야기」, 이태준, 군수사업

1. 자연의 폭동

문명이 시작한 이래 인간은 꾸준히 자연을 바꾸는 사업에 천착해왔다. 인간은 짐승을 길들여 가축으로 만들었다. 말 위에 올라탔으며, 소에 쟁기를 얹고, 돼지를 우리 안에 가두었다.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켜 노새를 만드는가 하면 서로 다른 종들을 교배해 더 튼튼하고, 더 왕성한 생식력을 가지고 있고, 더 젖을 많이 짜내는 품종을 만들기도 했다. 인간 문명의 발달은 짐승을 비롯한 자연에 대한 더욱 확고한 통제와 '개량'을 수반했던 셈이다.

이러한 통제의 발달은 인간과 짐승을 가까이 만드는 한편, 그 거리를 벌려놓았다. 먼 태고에 수렵과 채집으로 삶을 영위하던 시절의 인간은 자연의 일부였다. 신화의 세계는 바로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을 엿보여준다. 이 세계 안에서 짐승들은 곧잘 인간이 되어 말을 걸고, 사람들도 짐승으로 변신한다. 곰이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이 시조신이 되는가하면, 짐승을 아내로 맞는 영웅이 출현한다.

하지만 동물이 가축화하면서 상황은 변화했다. 이때 짐승은 인간의 재산이 된다.[1] 마치 재산을 처분하듯 가축의 용도와 생명은 주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대에 이르면 공장과 같은 축사에서 수백·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집합적인 생을 영위하게 된다. 소는 더 이상 인간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제는 자연이 허락한 수명에 못 미치는 단축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도축되는 것이다.

---

1) 프로이트는 「토템과 타부」에서, 동물의 가축화, 즉 수렵생활의 종식이 토테미즘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겨남에 따라 공희제는 토템 동물을 (신과 인간이)함께 나누어 먹는 형태에서 신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바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윤기 옮김, 「토템과 타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97, 209~225쪽)

인간의 육류섭취량은 과거에 비해 비할 수 없이 증대되었다.[2] 이에 따라 육류의 생산과 소비 과정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는 정육점, 혹은 대형할인점의 육류 매대에서 고기를 구입한다. 과거에는 동리사람들이 모여 소와 돼지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비우고, 고기를 갈랐으나 이제는 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어떤 과정에도 개입함 없이 오직 고기만을 구매하게 되었다. 이때 소고기는 생산과정의 흔적이 일절 제거된 상품이 된다. 즉 근대적 자본주의는 삶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짐승과의 관계 또한 상품 교환의 영역으로 변화시켜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적 시스템이 자연[3]에 가한 폭력은 종종 되돌아온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집약적이 되어버린 목축업은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는 습격에 맞닥뜨리곤 한다. 2010년 여름에 발생한 구제역은 300만 마리에 가까운 돼지를 한꺼번에 감염시켰다.[4] 근대적 목축업은 인위적으로 좁은 공간 속에 지나치게 많은 개체수를 집합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5]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한 광우병

---

2) 예컨대 1910년 한국 축산농가의 총 한우 사육량은 703,844두였으나 1975년에는 1,545,832두로 증가했다. 총가축수/총가구수의 비는, 통계가 확인되는 1952년 0.03에서 1974년에는 0.36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영묵, 『축산학』, 선진문화사, 1985, 45~46쪽 참조)

3) 이때 자연은 반드시 동물이나, 식물, 환경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nature)은 동식물 등의 자연계를 지시하는 한편, 생물이나 사물의 본질 및 본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자연이란 문명이나 근대의 대척점에 있는 비-인위적인 것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4) 국가통계포털(www.kostat.co.kr)의 '가축동향조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분기에 9,880,632두였던 국내 돼지의 수는 구제역 발생 이후 2011년 1분기에는 7,036,116 두로 급감했다. 약 300만 마리에 가까운 수가 살처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축산학개론에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동물 환경의 인위적인 제한 때문에 가축들의 질병발생이 용이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가축은 畜主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부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자유로 먹고 싶은

또한 목축업의 발달이 불러일으킨 자연의 복수라고 볼 수 있겠다. 문명은 효율성과 생산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는데, 육량을 증가시키고 개체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곧바로 반항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억압된 자연은 종종 폭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문학은 길들여지지 않고 야성을 자랑하는 이 자연의 폭동을 종종 묘사해왔다. 대양의 배들을 침몰시키는 고래의 이야기인 『백경』은 그 가장 위대한 예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학사에도 이 주제에 대한 소품 하나가 남아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태준의 「토끼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2. 생활인 이태준의 부업, 양토(養兔)

이태준의 「토끼이야기」는 1941년 2월에 『문장』에 발표되었다. 「토끼이야기」는 이태준 본인으로 보이는 주인공 '현'이 등장하는 심경소설에 속하는 작품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었던 1940년 8월 이후 작가의 행보가 잘 드러나 있다.[6]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현은 예술가에서 생활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생활을 씁쓸하게 돌이키고 있다. "소위 불혹지년이란 게 낼 모레"가 되었으니 "밤낮 이것만허다 까부러질" 수도 없건만, "고작 애를 써야 신문소설이나" 쓰고 있는 스스로의 생활에 불만이 가득

것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의 제한을 받으며, 신선한 공기의 부족, 기후의 변동 등에도 재한을 받고 있다." (맹원재 外, 『축산학개론』, 선진문화사, 1991, 413쪽)

6) 물론 '현'과 이태준을 완전히 동일한 인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후에 다시 서술하겠지만, 「토끼이야기」에는 실제 이태준의 전기적 사실과는 어긋나는 정황들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해진 것이다. 본디 현은 “단편 하나라도 자기 예술욕을 채울 수 있는 창작에 자기를 기르며 자기를 소모시키고 싶었”으나 정작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 년에 하나씩은 신문소설”을 쓰고 있다. 그는 “방황하는 이곳 신문학을 위해 그 대도(大道)로 들어설 바 교량(橋梁)이 될 만한 대작”을 꿈꾸고 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현실은 그에게 오롯이 과업에 매진할만한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태준, 「토끼이야기」, 『돌다리』, 깊은샘, 1995, 173쪽. 이후 쪽수만 표기) “직업도 없이, 집 한 간 없이” 장가를 든 후 “공부고 예술이고 모두 제이 제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 ‘동아’에 한자리를 얻”는가 하면 신문소설을 연재하며 생계를 꾸리게 되었다.(172쪽) 그 사이 현이 진실로 성취하고 싶었던 예술은 점점 멀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1940년 8월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나란히 폐간되자 이 만족스럽지 않은 생활마저 부지하기 힘들어진다. 그에게 신문소설을 청할 지면이 사라진 것이다.

술로 시름을 달래던 현은 아내의 청에 따라 부업으로 토끼를 기르기로 한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뉘 집에서는 처음 단 두 마리를 사온 것이 일 년이 못 돼 오십 평 마당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도록 퍼지었고, 뉘 집에서는 이백 원을 들여 시작했는데 이태가 못 되어 매월 평균 칠팔십 원 수입이 있다”(175쪽)는 것이다. 현은 신문소설을 쓰는 것보다 마음에 구속이 적고 “넉넉히 책도 읽고 십 년에 한편이 되더라도 저 쓰고 싶은 소설에 착수할 여력”이 생길 것 같아 선뜻 양토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현, 혹은 이태준의 내면 안에서 생활인과 예술인의 영역이 분열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정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태준은 흔히 ‘한국 단편소설의 완성자’[7]으로 평가될 만큼

7) 이병렬, 『이태준 소설연구』, 평민사, 1998, 22쪽.

단편소설의 창작에 있어 수준 높은 솜씨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생활을 위해서 원치 않는 신문소설을 해마다 한편 씩은 써야 하는 처지이다. '생활'과 '예술'의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은 이태준 단편소설, 특히 이태준 자신의 신변사를 취급하는 이른바 '심경소설'들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복덕방」과 같은 작품을 통해 자본의 논리를 좇아가는 인물들을 비판하고, 근대에 뒤처진 인물을 비감 어리게 묘사했던 이태준의 이력을 생각할 때, 생활과 예술의 동떨어진 간극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토끼이야기」의 현이 이러한 이태준의 고뇌를 어느 정도 재현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로 한다면, 그가 예술가에서 곧장 유능한 생활인으로 변모하지 못했음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현은 별안간 기민한 사업수완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양토사업은 원활히 흘러가지 않았는데, 토끼들은 순식간에 새끼를 치고 그 수가 사십여 마리까지 불어났지만 콩 값이 오르는 바람에 건사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토끼는커녕 닭을 치던 집에서들까지 닭을 팔고, 닭의 우리를 허는 판"이었다. 현 내외는 결국 양토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가죽이면 얼마든지 일시에 처분할 수가 있으나 산것 채로는 어디서나 먹이가 문제"라 토끼를 처분할 길이 마땅치 않다. 더군다나 집에는 "사십여 마리의 가죽을 쟁을 쳐 말릴 널판도 없거니와 단 한 마리라도 칼을 들고 껍질을 벗길 위인"이 없다. "현은 남자면서도 닭의 멱 하나 따본 적"이 없으며 현의 아내는 "닭 한 마리를 온구채 사왔더니 닭의 흘겨뜬 죽은 눈이 무서워 신문지로 덮어놓고야 썰던" 사람인 것이다.(178쪽)

현은 결국 칼을 들고 그 가죽을 벗기기로 결심하나, 아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져 포기하고 만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직접 토끼를 죽여 가죽을 벗기고는, 현에게 물을 떠 피가 묻은 손을 씻어달라고 요구한다. 이때 현

은 “피투성이의 쩍 벌린 열 손가락, 생각하면 그것은 실상 자기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183쪽)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거침없이 피를 묻히는 과단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잔인함 속에서 포획될 수 있는 자본일 것이다. 「토끼이야기」는 생활이 피와 자본을 요구하고 있음을 섬뜩하게 토로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3. 근대적 목축의 폭력성

「토끼이야기」에서 현 내외는 최초에 토끼 이십 마리를 구입했다. “제일 기르기 쉽다는 메리켄” 종이다. “이 작고 귀여운 현의 집 새 식구 이십 명은” “박꽃처럼 희고 여”려서 “자연의 한 동물이라기보다 시험관 속에서 된 무슨 화학물(化學物) 같았다”.(176쪽) 이 희고 여린 토끼들은 가을이 될 무렵 사십여 마리로 수가 불어났다. 계절이 하나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 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비정상적이라 할 만한 왕성한 번식은 곧 현 일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온다. 토끼의 사료로 하루에 일원 사오십 전씩 나가는데, “이렇게 서너 달만 먹인다면 그 담에는 토끼 오십 마리를 한목 판다 하여도 먹이값 밖에는 나올 게 없”(178쪽)었던 것이다. 이렇게 현 일가에게 경제적 파국을 불러오는 이 굉장한 번식력은 사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현이 구입한 메리켄 종은 일본에서 건너온 종자로, 미국 품종의 집토끼를 개량한 것이다.[8] 한국 재래종 토끼는 멧토끼(Korean hare)로 집토끼보다

8) 메리켄(メリケン)은 미국, 아메리카를 뜻하는 일본의 외래어 명사이다. 이것은 하얀털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 백색종(白色種) 집토끼를 일컫는 명칭으로 보인다. 일본 백색종(Japanese White) 은 크기에 따라서 아메리칸형, 이탈리안 형, 낭킹 형으로 나누는데, 아메리칸형은 체중 5.6kg에 달하는

큰 덩치에, 일 년에 2번의 가임기를 가지며 한 번에 두세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이에 반해 일본 백색종은 한번에 7마리의 새끼를 낳는다.[9] 그리고 멧토끼는 잿빛이 도는 갈색 털을 지니고 있다. 박꽃처럼 희다는 메리켄 토끼의 특징은 사실 한국에서 자생하는 토끼의 보편적인 특징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태준이 토끼를 두고 '화학물'과도 같다고 평했던 것은 단순한 수사(修辭)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인공의 산물(産物)인 화학물처럼 메리켄 토끼도 자연 상태를 조작한 인위적 피조물이다. 근대 축산업은 이를 '개량'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만, 이 개량은 애초부터 인간을 다시 곤경에 빠트릴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셈이다.

다른 많은 산업들이 그러하듯 한국의 축산업도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조선에서는 여러 사육목장을 경영하며 말과 소, 양 등을 목축하였고[10] 민가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소와 돼지 닭 등을 길렀지만, 자본 증식을 위한 대량 목축과 대량 보급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말과 소, 양 등은 운송수단, 노동력, 가죽과 같은 부대적인 목적이 있어 국가에서 관리했으며, 고기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의 경우 크기가 작아 고기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았다.[11] 한국에서 근대적 목축이 시작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 고종에 의해 농무목축시험장이 설치된 이후이다. 이 농무목축시험장의 사업의 일환으로 1885년, 조선에는 비로소 캘리포니아산 말 3두, 젖소 3두, 조랑말 3두, 돼지 8두, 양 25두 등이 도입되어 근대적 목축의 시대가 열리기

크기를 지니고 있다. (김영묵, 『축산학』, 선진문화사, 1985, 76쪽 참조)

9) 김동곤 外, 『한국가축개량사』, 삼우상사, 1980, 398쪽.

10) 조선시대 목축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남도영, 「조선시대 제주도목장」,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1969를 참조.

11) 김동곤 外, 『한국가축개량사』, 삼우상사, 1980.

시작했던 것이다.[12]

그런데 토끼는 전통 사회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짐승이다.[13] 말과 소, 돼지, 양 등은 인간에 의해 대량으로 사육된 전례가 있었지만, '메리켄'을 비롯한 하얀 집토끼 품종들은 근대가 비로소 조선에 소개한 여러 박래품 중 하나였다. 이때 '화학물'같은 하얀색은 근대의 산물이 지니고 있는 신비와 이질감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그런데 이 근대의 가축은 반드시 빠르게 죽어야 한다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현은 이 토끼들을 빨리 처분하지 못하는 바람에 토끼우리를 증사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 제한된 축사는 생산에서 출하까지의 공정이 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일종의 공장이다. 이때 전통적으로 영위되었던 가축들의 삶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서술했다시피 말은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동물이며, 소는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닭은 고기 이외에도 달걀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돼지만이 순전히 고기와 가죽을 얻을 목적으로 길러졌지만, 그 수가 적었다. 국산 재래종의 돼지는 그 크기가 작아 고기를 얻기에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14]

근대적 축산업은 한 농가의 자족적인 장 안에 있는 짐승들의 삶을 우리 속으로 한정시키고, 태어나고 죽는 과정의 순환을 단축시켰다. 한정된 공간의 축사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왕의 동물들이 빠르게 죽어야 하고, 그 빈자리를 왕성한 번식력으로 채워야 한다. 국내에 근대적 목축이 도입된 이후 가축들

---

12) 김영진・홍은미,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 1884-1906)의 기구변동과 운영」, 『농업사연구』, 한국농업사학회, 2006, 74쪽.

13) 전통적으로 畜은 六畜을 의미하는데, 즉 소와 말, 양, 돼지, 개, 닭을 뜻한다. (김동곤 外, 『한국가축개량사』, 삼우상사, 1980, 137쪽)

14) "1904년 朝鮮農業便監에 의하면 「돼지의 사육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종류가 열등하여 체구는 왜소하다. 丈 1.2尺을 넘지 못한다." (김동곤 外, 『한국가축개량사』, 삼우상사, 1980, 138쪽)

의 수는 절대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균수명은 비약적으로 하락했다. 이제 소들은 2년, 돼지는 6개월, 닭은 6개월에 못 미치는 수명을 향유한다.[15] 자연이 그들에게 허락한 수명에 심각하게 미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즉 근대적 목축은 동물 개체의 본성을 조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심각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토끼이야기」의 토끼가 인간이 만들어낸 바로 그 특징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곤경을 입힌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자연을 착취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그 특성이 정확히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준은 양토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내가 가져다준 책을 읽으며 토끼 기르는 법을 익혔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고 토끼를 처분할 일이 막막해지자 책사에 들려 토끼의 도살법에 관한 부분을 차근차근 읽기 시작한다.

그곳에는 "토끼를 죽이는 법, 목을 졸라 죽이는 법, 심장을 찔러 피를 뽑아 죽이는 법, 물에 담가 죽이는 법, 귀를 잡고 어느 다리를 어떻게 잡아당겨 죽이는 법, 그리고 귀와 귀 사이의 골을 망치로 서너 번 때리면 오체를 바르르 떨다가 죽게 하는 법, 이렇게 여섯가지"(181쪽) 방법이 쓰여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명랑하고, 건실한 생활"에 부합하기 위해 익혔던 양토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렇게 토끼를 죽이는 다채로운 방법 속에 숨어 있었던 셈이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근대는 피를 부르는 폭력을 필수적으로, 그러나 처음에는 언뜻 눈치를 챌 수 없도록 안배하는 으스스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셈이다.

---

15) 2011년 현재 한우 14여만 마리 중 24개월령 이상의 수는 약 만 여 마리에 불과하다. 돼지 7,783,312 마리 중 6개월령 이상의 돼지는 약 80만 마리 정도이다. 닭은 전체 141,799,151 마리 중 약 1/3인 500만 마리 정도만 6개월 이상 월령에 속한다.(국가통계포털 가축동향조사 참조)

4. 풍요의 양면

본래 토끼는 십이지신 중 하나로, 묘월은 음력 2월, 묘시는 5시에서 7시를 뜻한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토끼는 만물의 생장·번창·풍요의 상징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농경사회에 있어서 한 해 농사의 본격적인 시작과 관계한다.[16]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특징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성을 획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꽃처럼 하얀 화학물인 메리켄 토끼들은, 이태준에게 한 가족의 생계를 지탱할 부를 약속했었지만 결국 그에게 경제적 곤경만을 안겨준다. 토끼의 무한한 증식이 오히려 화로 작용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근대의 기이한 패러독스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다산(多産)이 재앙으로 작용하는 기묘한 풍경 말이다.

물론 다산이 축복보다는 공포의 대상으로 표상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이중성 때문에 말미암아진다. 세계 곳곳의 신화들은 각각 무서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티탄족을 낳아 올림푸스의 신들을 공격하는 대지모신(大地母神) 가이아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낳았던 자식들에게 전쟁을 걸었던 거대한 뱀신 티아마트가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원형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 이중성에 기인한 현상이다.[17] 가솔이 늘어나면 식구(食口)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예컨대 흥부는 제비로부터 초자연적인 해법을 제공받기 전에는, 많은 부양가족 때문에 가난의 처지에 빠져 있었다.

---

16) 김이숙, 「토끼띠의 민속과 상징」, 『중앙민속학』 제 6호,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1994, 113쪽.

17) 태초의 모성(母性), 모성적 원형(原形)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은 C.G. 융,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2006을 참조.

하지만 메리켄이 가져온 곤경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위치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물이 과잉 공급되면 가격은 하락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이 유도되는 것이다. 이것은 농산물과 같은 식량도 마찬가지여서, 작황이 좋을 경우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진다. 이것은 1929년에 시작한 세계 경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던 자본주의의 심연을 예시한다. 미국에서 시작한 대공황은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호황기 속에서 과잉생산된 소비재들이 계속 재고가 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유도되며 이루어졌던 것이다.[18]

「토끼이야기」에서 토끼가 지니고 있는 무시무시한 번식력은 자본주의적 생산성의 측면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토끼는 말이나 소, 개와 같은 전통적 가축들처럼 어떤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토끼는 오로지 번식하고 성장한 다음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판매되어야 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 위치해 있다. 요컨대 토끼는 오직 교환가치로서 존재한다. 그들은 화폐요, 자본이다. 이때 토끼가 지니고 있는 다산적 속성은 증식하는 자본의 상징으로 변화한다. 근대적 목축에 의해 탄생한 '메리켄'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현이 토끼를 기르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양토사업에서 재미를 보고 난 후였다. 토끼 기르는 책이 시중에 나올 정도로 대중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때 이름 높던 피아니스트"(175쪽)도 마당에 우리를 두고 토끼를 기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가축의 수는 자연 곡물소비의 상승을 부추긴다. 콩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전 양토사업이 장애물에 맞닥뜨리게

18) 이헌대, 「세계대공황의 원인과 성격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경제사학회, 1996.

된다. 토끼에게 사료로 주는 콩의 양이 줄어버렸던 것이다.

현은 대학병원에 일하는 의사에게 토끼를 처분하러 갔으나, "십여 년째 대이는 사람이, 그도 요즘은 한두 마리씩 더 갖다 맡기어 걱정이라"(181쪽)는 말로 거절당했다. 토끼를 처분하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양토업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토끼의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초래되었다. 불황이 닥치게 되자 기왕에 생산된 물건들은 과잉하게 공급되지만, 그들이 소비될 곳은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토끼들은 바로 이 순간, 화학물의 상태에서 탈피하여 야성을 터뜨린다.

> 오는 길로, 옷을 갈아입는 길로, 토끼 한 놈을 꺼내었다. 묵직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뻐들컹거리고, 눈을 똘망거리고…… 교미기가 지난 놈들이라 새끼 때의 화학물감(化學物感) 박꽃감은 이젠 아니요, 놓기는커녕 웬만큼 서투르게만 붙잡아도 뻐들컹하고 튕겨져 산으로 치달을 것만 같은 짐승이다.(181쪽)

개량된 집토끼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먼 선조의 야성이 남아 있다. 하얀 토끼는 어느덧 성년이 되어 '짐승'이 되었다. 인간에 의해 그 본성이 통제되고 '개량'된 메리켄 토끼는 바로 그 개량된 번식력으로 인간을 압박하는 한편, 마지막 순간에 숨겨져 있던 야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화학물처럼 인공적이며, 사실상 화폐와도 다름없었던 메리켄이 '짐승'으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내며 서사는 막바지로 치달아간다. 아내가 두 손에 묻은 피를 닦기 위해 물을 떠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화학물에도 피가 흐르고 있으며, 이를 화폐(자본)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그 목숨을 앗는 폭력이 필요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현은 "죽은 닭의 눈을 신문지로 가려 놓고야 썰던 아내의 그전 모습"(183쪽)을 떠올리며 심경이 복잡해진다. 자신을 향해 벌려진 피 묻은 양손은 사실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신해주기를, 토끼를 죽이는 것을, 화폐를 가져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피 묻은 손은 "명랑하라, 건실하라"고 확성기로 외치는 시대가 내민 것이기도 하다.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해 자연을 어그러뜨리는 근대는 '명랑'의 표어 밑에, 사실 피 묻은 손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4. 군국주의의 사업

자본이 '피 묻은 손'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은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폭압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40년대 당시의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성격을 적확하게 예시하고 있기도 하다.

현이 묘사하는 바, "명랑하라, 건실하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란 다름 아닌 총동원체제를 의미한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순서로 일본의 전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갔다. 일본 본토와 조선, 오키나와, 대만 등의 식민지는 총동원체제의 강령 아래 전쟁을 위해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지난한 과정에 돌입한다. 이때 경·중공업을 비롯하여 농수산업, 문화·예술 등 사회의 전분야가 전쟁을 위한 생산의 영역에 수렴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무조건적인 억압을 통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생산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함으로써, 욕망을 좌절시킴으로써가 아니라 부추기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다.

「토끼이야기」에서 현은 '동아'와 '조선'이 폐간되자 신문소설을 연재할 공간이 마땅치 않게 된다.[19] 그리고 토끼는 이러한 상황

19) 하지만 실제로 이태준은 꾸준히 연재소설을 발표할 지면을 얻을 수 있었다. 『매일신보』나 『신시대』에 『사상의 월야』, 『별은 창마다』, 『왕자호동』 등을 연재하였던 것이다. 작품 안에서 '현'은 신문연재소설의 집필을 중단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전기적 불일치는 작중의 현이 이태준의 실제적 현실보다는 심리적 현실, 혹은 이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속에서 이태준이 생활인으로서 당당히 자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토끼는 단순히 1940년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목축 품종인 것이 아니다. 양토사업의 유행은 일본이 확대하고 있는 전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조선의 양토는 대정십삼,사년경에 種兎取扱業者의 實傳으로 一時에는 非常히 ○하얏는데 그후양토가 種兎取扱業者의말과가티그러케有利하지안은것이判明되야 그 飼養이 ○○하얐는데 最近에는養兎가非常히有利하게되어再次그○養者가만히增價하는데그原因은주로毛皮가高價로팔리는까닭이라한다現에陸軍省에서는朝鮮에서兎皮○購入하야 朝鮮의兎皮가그價値를알게되엇다 그래서總督府에서는陸軍에서이와가티힘을쓰는것을보아서 養兎가앞으로有利하리라하야우선각道知事에게명하야 … 20)

위의 기사에 따르면 조선에서 정책적으로 양토가 장려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의 일이다. 이미 조선에는 1924년에 양토가 소개되고는 있었으나 그리 수익성이 높지 않았고, 이 해 일본육군성이 조선에서 토끼 가죽을 사들일 계획을 짜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그 전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43년 9월 14일자 『매일신보』에는 「戰勝은 養兎에서」라는 기사가 실리고 있다. 기사는 작금 영미와의 전쟁이 인류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지 길게 서술한 후 토끼가죽이 "空軍의 防寒被服"으로 안성맞춤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육군을 넘어 공군에 이르기까지 토끼가죽의 수요가 확대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확대에 따라 군용장비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토끼가죽의 증산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앞서 토끼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생식력이 자본의 증식의 메타포로 변화하게 되는 사정을 지켜보았었다. 그런데 이 지점

---

20) 「양토는앞으로유망하게되겟다」, 『중외일보』 1929년 5월 1일.

에서 '토끼=자본'의 등호는 다시 일본 제국주의와 상징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국가의 모든 생산력과 자본을 전쟁에 집중시키는 상황 속에서, 무한히 증식하는 토끼는 성공적으로 군용으로 소비되었다. 과잉한 생산력은 어디선가 소비되어야 하며, 전쟁은 온갖 잉여를 삼키는 거대한 입 중 하나이다. 토끼는 여기서 전쟁-자본의 한 상징이 된다. 그렇다면 이태준이 양토를 통해 곤궁에 처하게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본디 일본의 군국주의 및 신체제가 요구하는 질서에 의해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시작할 때 현은 중외(中外)에 있으면서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었다. "월급날이면, 그것도 어두워서야 영업국에서 긁어오는 돈 백 원 남짓한 것" 받았던 것이다. 친구 서해는 매신으로 옮기며 "가끔 원고나 보내우. 현도 아무리 독신이지만 하숙빈 내야 살지 않소"라고 현을 얼렀다. 민족자본으로 경영되는 중외의 사정이 어려웠던 사정과,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정황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 현은 이후 중외일보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실상 '매신'의 원고료로 하숙비를 내며 사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1940년 8월에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가 문을 닫게 되자 현은 몇날 며칠을 술독에 빠져 지내게 된다. 그 이유가 확실히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총동원체제 안에서 기왕의 삶의 터전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보며 분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던 현이 아내의 말에 따라 토끼를 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내면은 갈등을 겪게 된다. 일본은 현이 예술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점점 확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일본의 군수물자로 팔려갈 토끼를 기르기로 한 것이 쉬운 결정일 리 없다. 거기에 이 토끼사업을 시작하는 자본은 '조선'과 '동아'가 폐간되며 받은 "송장의 주머니에서 턴 것 같은, 가슴이 섬찍한 퇴

직금”(175쪽)이었다. 현은 바야흐로, 자신을 절망에 빠트리게 만든 ‘시대’에 일조하려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21]

5. 근대가 바꾼 것

아도르노는『계몽의 변증법』에서, 계몽의 기획이 어떻게 인간을 새로운 종류의 야만에 빠트렸는지 날카롭게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진보는, 자연(nature)을 도구화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필수불가결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결국 인간 자체를 도구화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2]

이때 도구화라는 것은 결국 억압이다. 자연을 인간의 목적에 맞추어 ’개량’하고 수단화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의 본성은 왜곡되거나 파괴되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근대는 인간 자체를 도구화하는 반인본주의적인 시대로 보였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대체로 나치와 대학살이라고 하는 인류적인 비극을 설명하는데 쓰이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비판은 인류의 ’진보’가 사실 자연(인간까지를 포함하는)에 대한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인간은 다양한 수준에서 자연을 조작해왔으며, 이것을 진보라는

---

21) 이태준은「장마」나「패강랭」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도 기왕의 삶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힘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따라서「토끼이야기」에서 이태준이 펼쳐 보이는 이 ‘자연의 복수’가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토끼는 인간에 의해 억압된 자연을 표상하는 동시에, 일본에 의해 조작된 조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중첩을 이태준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2) 테오도르 아도르노,『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이름으로 명명했다. 서양의 많은 소설들은 자연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로빈슨 크루소는 외딴 섬에서 생존을 위한 분투를 해야 했으며, 해양소설 속의 많은 선장들은 수많은 바다괴물 및 스콜, 무풍지대와 싸워야 했다. 미지의 자연은 언제나 인간이 도전해야할 목적지로 그려졌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학 안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묘사한 작품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근대 이전의 서사 속에서 다양한 동물들은 요괴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으나, 20세기 들어 리얼리즘이 문학의 주된 기조로 떠오르며 그 경향은 사라지고 말았다. 한국문학사 안에서 동물이 나타나는 소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자연을 길들이거나, 도전하거나, 역습에 처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없는 것이다.

앞의 분석에서 우리는 어떻게 토끼가 근대의 박래품으로서 조선에 소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하얀)토끼는 원래 조선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오로지 자본의 증식을 위해 길러진다는 점에서 진정한 근대적 박래품이었다. 반근대주의자이며 예술의 숭고함을 신뢰하던 이태준이 이 근대의 물신(物神)을 기르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 그는 일종의 자기배신을 저질렀던 셈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조작된 자연이 어떻게 인간에게 폭동을 일으켰는지 토끼를 통하여 마주하게 된다. 인간에게 포획당한 자연이 결국 그 야성을 드러내고 복수한다는 이 흥미로운 주제는 이태준 이전·이후를 통틀어 아주 드물게 포착되었다. 이때 이태준의 「토끼이야기」는 우리 문학이 '자연'에 주목한 흔치않은 사례로서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는 『백경』을 낳았던 이 위대한 주제가, 훨씬 짧은 분량 속에서, 그러나 아주 재치 있고 진솔하게 재연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곤 外,『한국가축개량사』, 삼우상사, 1980.
김영묵,『축산학』, 선진문화사, 1985.
김영진・홍은미,「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 1884-1906)의 기구 변동과 운영」,『농업사연구』, 한국농업사학회, 2006, pp. 71-85.
김이숙,「토끼띠의 민속과 상징」,『중앙민속학』 제 6호,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1994, pp. 109-150.
남도영,「조선시대 제주도목장」,『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1969, pp. 661-715.
맹원재 外,『축산학개론』, 선진문화사, 1991.
이병렬,『이태준 소설연구』, 평민사, 1998.
이헌대,「세계대공황의 원인과 성격에 관한 연구」,『경제사학』, 경제사학회, 1996, pp. 131-161.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윤기 옮김,『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97.
테오도르 아도르노,『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C.G. 융,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2006.

<기본자료>
『중외일보』,『매일신보』,『문장』
이태준,「토끼이야기」,『돌다리』, 깊은샘, 1995.
국가통계포탈(www.kostat.co.kr)

Vengeance of Nature
- A Study on “A Story of Rabbits” -

Yu, In-Hyeok

This article hav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society and the nature through “A Story of Rabbits” written by Lee Tae Joon. In Western, many novels, for example *Moby Dick*, represent the subject. On the other hand, novels depi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ity and the nature have hardly been wrote in Korea. Yet, Lee’s “A Story of Rabbits” focuses on how modern society controlled the nature, and how the nature revenged to human.

This paper supposes that the rabbits described in the story was not Korean native. The Korean hares have grey hair. The rabbits in the story have pure white hair, and it means that the rabbits exported from somewhere else. It actually is the Japanese White, the rabbits improved its breeding potential. So, the white hair represents the uncanny character of modern foreign products.

Hyun, the main character, faces economical problem because of the abnormal reproduction rate of rabbits. These fertility causes increased number of rabbits but the market was not favorable. This is because its market entered over-competitive condition since many of the middle class started the business. At this moment, the rabbits represent reproduction power of Modern capitalism via its fertility. And considering over-produced goods in stock causes competition, the fate of rabbits expresses economic depression

We can consider the rabbits as the creature revenging to human by its given character. And rabbit raising was not just the sideline blooming in 1940’s. It was actually one of the defense industry business. It flourished when Japanese Army started buying rabbit leather as a cold protection. Hyun, who was very sorry for the expansion of Japanese imperialism, had agony for that.

Key words: Modernity, Nature, Capitalism, Livestock, The economic depression, “A Story of Rabbits”, Lee Tae Joon, Defense industry.

유인혁
소속: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학술관 지하 1층 대학원 제 1연구실
전화번호: 010-6866-1904
전자우편: neverbetter83@gmail.com

이 논문은 2012년 6월 29일 투고하여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함.